Life p/12

제시카 광채피부의 비밀

메트로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Sports p/20

제라드 콧대 꺾은 기성용

원금도 못건지는 연금보험

NEWS p/02

배추값 껑충 김장물가 걱정

NEWS p/03

Entertainment p/14

더 이상 소녀 아닌 박보영

메트로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제2601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6

'3색 매력' 입은 손담비

삼성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제패

삼성이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SK를 7-0으로 완파하고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했다. 경기 뒤 선수들이 얼싸안으며 환호하고 있다. 이날 박석민이 3타점 3루타를 기록한 '라이언 킹' 이승엽은 생애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서 MVP를 받는 영광을 안았다. <관련기사 20면> /뉴시스

<봉준호·김지운 감독>

K무비 띄운 두 남자

아메리칸필름마켓 출품 420편중 '설국열차' '라스트 스탠드' 호평

K-팝에 이어 이젠 K-무비다!

올 한 해 천정의 상승 암로를 걷고 있는 한국영화와 영화인이 태평양 건너 북미 지역 최대의 영화시장인 '2012 아메리칸 필름 마켓(AFM)'에서 풍성한 '가을걷이'를 노린다. 그 중심에는 봉준호·김지운 감독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열리는 AFM은 전 세계 70여 개국 750여 개 회사가 1500여 편의 작품을 사고 파는 '영화 장터'다. 칸·베를린과 더불어 세계 3대 마켓으로 불리며 올해는 행사 기간 중 상영될 완성작 420여 편 가운데 월드 프리미어(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는 77편, 마켓 프리미어(마켓에서 선보이는 작품)는 306편에 이른다.

올해 AFM에서 한국영화로는 '설국열차' '베를린' '타워' '광해, 왕이 된 남자' '도둑들' '회사원' '내가 살인범이다' '이웃사람' '후궁: 제왕의 첩' '공모자들' '점쟁이들' 등이 매물로 나왔다.

이 중 화제작은 빙하기가 도래한 지구의 인간 군상을 그리는 봉준호 감독의 SF 휴먼 드라마 '설국열차'다. 순 제작비만 4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작으로 송강호·크리스 에반스·틸다 스윈튼 등 국내외 연기파들이 총집합해 기획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다.

2일과 4일 극소수의 바이어들만 대상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프로모션 영상을 공개하는데 벌써 가장 '핫'한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지운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원조 근육질 스타'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액션물 '라스트 스탠드'도 개막 전 이미 호평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달 30일 관계자들에게만 상영됐는데 후반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미완성본임에도 무척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사 데이지엔터테인먼트 측은 "때마침 미국 영화인조합이 어제(3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주최한 제15회 비전페스트에서 김 감독에 차세대 감독상을 받아 AFM에서 김 감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감독상은 미국 영화인조합이 탁월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예술적 영감을 선사한 감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아시아 감독이 받기는 김 감독이 처음이다.

한 국내 영화 수입사 관계자는 "세계적인 불경기로 올해 AFM은 예년에 비해 분위기가 다소 썰렁한 편이지만, 한국영화는 예외"라며 귀띔했다. /산타모니카=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오늘 점심 짬뽕보다 우동!

비만·고혈압 등 줄이는 직장인 현명한 외식습관

선택의 순간, 입맛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오늘 점심은 칼칼한 짬뽕이 생각나더라도 우동을 고르는 게 좋겠다. 짬뽕(1000g·688kcal)과 우동(700g·422kcal)의 칼로리 차이가 꽤 벌어져서다. 마찬가지로 볶음밥(400g·773kcal) 대신 비빔밥(500g·707kcal), 비빔냉면(550g·623kcal) 대신 물냉면(800g·552kcal)이 몸을 가볍게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비만·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관리법을 담아 펴낸 '건강생활을 위한 영양·식생활 실천가이드'에 따르면 직장인에겐 특히 외식 습관이 중요하다. 조리법이나 재료를 따져 열량과 나트륨이 적은 메뉴를 골라야 한다.

술의 열량도 무시 못한다. 한 잔의 열량은 맥주(500cc)가 185kcal로 가장 높았고 막걸리(138kcal) 위스키(75kcal) 보드카(72kcal) 소주(63kcal) 와인(56kcal) 순이었다.

술과 곁들이는 안주는 곤장 뱃살로 간다. 삼겹살은 1인분(200g)에 651kcal에 달했고 양념치킨 한 조각(50g)은 250kcal나 됐다.

카페인 섭취량 또한 중요하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400mg으로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위산과다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효순기자 hs|ee@

"깨어보면 늦습니다" 연말엔 절주 스타일로 보건복지부와 자원새포(?)20개 알코올정책공동체모임, 식약국, 대한보건협회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절주선포식과 절주스타일 퍼레이드를 펼쳤다.

'마약성분 감기약' 밀반출

30억원어치 구입해 청국장으로 위장 덜미

마약 원료가 함유된 감기약 1950만 정을 청국장으로 위장해 멕시코로 밀반출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마약류 밀반출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필로폰 원료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멕시코로 밀반출한 염모(53)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감기약 9만3000정을 압수했다.

◆멕시코서 필로폰 제조원료로 사용 추정

임씨는 멕시코 거주 킨모(50)씨에게 '염산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대량 함유된 감기약 N사 A정과 S사 B정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모두 1950만 정을 30억원에 사들여 김씨에게 43억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인터넷 띠모임 카페에서 알게 된 김씨와 연상 등 한약재를 거래하다 감기약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김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감기약을 청국장으로 위장했으며 보따리상을 통해 멕시코로 밀반출했다.

경찰은 밀반출된 감기약이 필로폰 제조 원료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밀반출한 감기약으로는 60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만들 수 있으며 시가로는 4조8000억원 상당에 이른다.

/김유리기자 grass100@

373만명 울린 연금보험

"2년 붓고 깼더니 70만원 손해"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 분통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지영(37·여)씨는 2010년 3월에 가입한 S생명 S인덱스 연금보험의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가지수가 연동되는 이 연금상품의 현재 수익률은 0%.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하지만 해지한 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250만여 원에 불과했다. 지난달까지 낸 보험료 320만원(월 10만원씩 32회 납부)보다 70만원이나 적었다.

약 375만명이 가입한 연금보험상품의 수익률이 상당수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지를 고려하거나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 절반 정도가 10년을 못 채우고 해지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자산운용·보험사의 621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보험사의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저조했다. 또 은행·자산운용사·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의 10년 계약유지율은 평균 52.4%였다. 가입자 절반 가까이가 10년을 못 채우고 계약을 해지했다.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은 8개 회사 중 7개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생보사는 손보사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보다 수익률이 저조하다. 8개 생보사의 주력상품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이 실망스럽더라도 중도해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추거나 다른 상품으로 계약 이전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최치웅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가운데 다스 회장이 1일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세균범벅 임플란트 1만6000개 납품

멸균 않고 85개 치과에 공급

감염 우려가 있는 비멸균 임플란트 1만6000개가 치과 85곳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멸균 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임플란트 고정체(잇몸에 심는 치단 부위) 2만6384개가 전국 85개 치과에 공급됐다.

식약청이 임플란트 멸균 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제조사 아이씨엠의 임플란트 생산량 5만5360개 가운데 멸균 실적은 9923개에 그쳤다. 멸균된 제품 전량이 치과에 납품됐다고 해도 전체 2만6384개 중 1만6461개는 비멸균 제품인 셈이다.

이 제품은 중간 유통업체 M사와 Y사를 거쳐 시중 치과에 팔렸다.

문제가 된 임플란트를 공급받은 치과 네트워크 측은 "우리가 취급한 임플란트 중 아이씨엠의 제품은 20% 이하이고 대부분은 정상 멸균 처리됐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관계 당국은 오염된 임플란트가 어디에 몇 개가 쓰였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고 촉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균검사 결과는 20일쯤 나올 예정"이라며 "비멸균 임플란트를 유통한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승현기자 unique@

이상은 회장 특검 출석…6억원 출처 등 추궁

1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주)다스 회장은 9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이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6억원을 왜 현금으로 줬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에서 충분히 얘기했으니 한번 기다려보라"고 대답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이 회장은 6시55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6억원이 다스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지"며 직답을 회피했다.

특검팀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이 회장을 상대로 조카이자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34)씨에게 6억원을 빌려준 경위와 자금의 출처 및 성격, 거액의 돈을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전달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배동호기자 @

메이저리거의 온정 배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가 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일대에서 '2012 사랑의 연탄나눔행사'에 참석해 직접 연탄을 나르고 있다. /뉴시스

'샤넬 No.5' 생사의 기로

알레르기 유발땃 핵심원료 사용금지 논의

마릴린 먼로가 사랑한 세기적인 향수 '샤넬 No.5'가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향수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료의 사용 금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화장품안전성평가위원회(SCCS)는 지난 7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일부 원료의 사용을 제재해야 한다고 집행위 측에 권고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안을 법규화할 경우 샤넬과 디오르를 포함한 향수업체들은 100여 개 향수의 제조법을 변경해야 한다.

여기에는 1921년 출시된 세기적인 향수 '샤넬 No.5'도 포함된다.

향수업체들은 "제조법이 바뀌면 절대 같은 향을 유지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CCS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레몬과 단제린 오일에 함유된 '시트랄', 열대 통카콩에 들어 있는 '쿠마린', 장미 오일에 들어 있는 '오이게놀' 등 12가지 원료의 농도를 완제품 대비 0.0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이눈희기자 unique@

서울 심야전용택시 검토

서울시가 심야 전용 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정을 전후해 택시잡기가 힘든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를 활용한 심야 전용 택시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심야 전용 택시 운영 시 참여 여부와 관련 세부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야시간에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대략 2만60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현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을 운행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 중이다.

/박프호기자 elanvital@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기타>

글·그림 박상철

뉴욕타임스 '나는 꼼수다' 보도

2011년 11월 2일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열풍을 보도했다. '나는 꼼수다'는 같이준 한겨레신문 총수,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4명의 진행자가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그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폭로와 풍자를 쏟아 계획 200만 회의 내려받기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신문은 나꼼수의 인기가 보수정권과 주류 언론에의 불신, 취업난, 물가상승 등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치적으로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폭염의 영향으로 배추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2.4% 오른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매장 앞이 썰렁하다. /뉴시스

배추값 72%나 올랐다

소비자물가 두달 연속 2%대 안정속 김장물가는 껑충

파, 배추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돼지고기, 고등어, 당근은 값이 떨어졌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상승했다. 하지만 배추, 파 등 매일 식탁에 오르는 채소의 가격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지난 9월에 비해서는 2.5%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5.9% 상승했다.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0%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파(86.6%) ▲배추(72.4%) ▲양파(65.1%) ▲배(45.6%) 등이 상승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체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4.6%), 전세(4.1%), 시내 버스요금(10.1%), 전철요금(13.2%), 하수도료(13.4%), 고등학생 학원비(7.7%) 등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2개월 연속 2%대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재정부 관계자는 "기상여건 호전 등으로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공공요금 등이 전반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sanl@metroseoul.co.kr

"서랍 빨리 열어 확인해 보세요" 놀이공원 티켓 5년만 유효

묵혀둔 놀이공원 티켓이 있다면 발행일을 빨리 확인해봐야겠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놀이공원 티켓은 발행일로부터 5년만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놀이공원 입장권을 인수해 되팔아온 서모씨 등 6명이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씨 등은 2009년부터 놀이공원 인근 쇼핑몰이 보유한 입장권을 다량 인수받아 되팔아오던 중 놀이공원 측이 발매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장권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발행·판매하는 것은 상법이 정한 기본적인 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입장권은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김문희기자

이해찬·박지원을 어찌할꼬

민주 지도부 총사퇴론 확산…文 "맡겨 달라"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후보 단일화 변수에 든 후보들이 암초에 부딪쳤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정치쇄신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지도부 쇄신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정치쇄신의 상징이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는 논문표절이라는 자기 검증 문제가 발목을 잡을지 주목된다.

김한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정치쇄신은 시대정신"이라며 "문 후보가 당 쇄신을 거리낌 없이 이끌 수 있도록 현 지도부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문 후보 캠프 내 새정치위원회는 전날 지도부 총사퇴론 등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당 쇄신이 지도부 퇴진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저한테 맡겨 달라"며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 최고위원 사퇴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지도부 총사퇴론에 대해서는 불가입장을 내보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일 강원도 고성 GOP부대를 방문, 이른바 '노크귀순' 사건이 일어난 소초문을 두드려보고 있다. /뉴시스

안 후보 측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안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시작했다고 한 전날 서울대 발표에 대해 "황당한 논란이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에서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게 터무니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 특히 MBC는 방송을 잘못해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문 "정치가 장난입니까"

'먹튀방지법·투표시간연장법 동시처리' 발뺌한 이정현에게 직격탄

야권이 대선 투표시간 연장안에 대한 발언 번복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1일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의 연계 처리를 제안해 놓고 뒤늦게 이한구 원내대표가 딴짓을 하는 먹튀정당"이라며 "공보단장이 멋대로 제안하고 원내대표는 모른다고 하는 마구잡이 정당에 어떻게 정권을 맡기겠느냐"고 성토했다.

박근혜(왼쪽)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도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차라리 투표율이 높아지면 불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후보는 이 단장을 향해 "정치가 장난인가"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후보 측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도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새누리당은 정치쇄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좌우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공보단장은 "후보가 국민 혈세(선거보조금)를 먹고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가 31일 "먹튀방지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 측도 "존중한다"며 동조하자 새누리당은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이 공보단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두 법을 교환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입법 사안이니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날 중앙선대위 박선규 대변인이 연계처리 방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다.

/박동호기자 dhsan@metroseoul.co.kr

민주 女의원들 "朴, 여성 위해 뭘했나"

새누리당의 '여성대통령 선출 자체가 정치쇄신' 주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은 1일 "박 후보에 대해 최근 야권에서 감히 '생물학적으로만 여성', '정치적으로 남성성'이라는 등 한지 못할 인격적 모욕을 남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수구적이고 역사퇴보적인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몽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여성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여성 리더십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변화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의 여성대통령론은 허구"라며 "여성의 진보를 위한 행보에 무임승차하려는 것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여성위원들은 "박 후보는 여성을 비롯한 약자들을 살리고 포용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그런 정치를 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슬기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4

발행 편집인	남 궁 호
사장 편집인	김 병 희
광고국장 직대	김 흔 열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9 2100
독 자 센 터	02)721-9862

2002년 5월 31일 창간 서울시 등록번호 서울 아 00037

장애인 인권 '인천전략' 선포

유엔 에스캅 회의 오늘 폐막…빈곤 척결·고용증진 등 중점목표 설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유엔에스캅이 주최하는 'UN 에스캅 정부간고위급회의(ESCAP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6억5000만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을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선언한다.

지난달 29일 개막된 이번 회의는 2013~2022년 아태지역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 및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장애인당사자 등 37개국 37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장애인 인권을 돌아보고 향후 10년간의 전략을 함께 수립했다.

▲ 임채민(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개최한 유엔 에스캅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드로잉을 전달하고 있다.

◀ 런던 패럴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김영건 선수가 김황식(가운데) 국무총리에게 성화봉 전달 점화식이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인천전략의 주요 내용은 10개의 중점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및 62개의 지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점목표는 빈곤감소와 고용증진, 정치·의사결정 과정 참여증진, 물리적 환경·대중교통·지식·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강화, 사회보호 강화, 장애아동 조기개입 및 교육 확대, 양성평등 보장과 장애여성 역량 강화, 재난 위험 감소, 장애데이터 신뢰도 개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 국제 및 하위지역 지원의 협력 강화로 설정됐다.

이번 인천전략 선포를 통해 한국 장애인의 권익증진은 물론이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장애인 정책 및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뿐 아니라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가 열린 송도 컨벤시아 주변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제공 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송도지역의 도보개선 및 송도 컨벤시아의 장애인화장실 추가 확충, 장애인 표지판 설치, 승강기 안전점검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대회 1년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의 지원으로 특장차 확보와 전용 콜택시가 전담 배치되고, 회의장 곳곳에는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점자로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충전소가 마련됐다. 또한 회의장 주변에서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전시, 공연이 함께 진행됐다. /박동호기자

ACE BED
1963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습니다
33 주년 기념
ACE BED
Special Event
• 행사기간 2012년 11월 2일(금)
놓치기 아까운 이벤트, 에이스침대이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event 1 Special Price
ANELLO
2,942,000
침대 구입고객에게 사은품을 드립니다
에이스침대

허리케인 덕분에 승기잡은 오바마

피해지역 누비며 리더십 과시 · 미국인 80% "재난대응 훌륭"

괴물 허리케인 '샌디'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특급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오바마가 국가 위기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최고 사령관'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헬리콥터를 타고 물에 잠긴 도로와 파손된 주택 등을 둘러보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뉴저지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알고 있다"며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티 주지사는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을 약속해 기쁘다"며 극찬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평소 '오바마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은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을 "어울리지 않는 커플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표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다니며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누리는 동안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속을 태우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폐지하겠다던 과거 공약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군으로 믿었던 크리스티 주지사까지 오바마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를 찾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 지역 주민을 껴안고 위로하고 있다. /AP 뉴시스

롬니 후보는 30일 최대 경합주인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허리케인 피해 위로 행사에서 FEMA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애써 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재난 사령관'으로서 오바마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롬니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오바마 대통령의 허리케인 대응이 '훌륭했다'거나 '잘한 편'이라고 답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일본인은 토착민·한반도인 혼혈"

日연구팀, DNA 분석 입증

현재의 일본인은 일본열도의 선주민인 조몬인(縄文人)과 한반도에서 건너온 야요이인(弥生人)과의 혼혈을 반복한 것이라는 유전자 해석 결과가 일본 연구진을 통해 나왔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종합연구대학원 등이 포함된 연구팀이 이 같은 '혼혈설'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국제전문지인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 인터넷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일본 본토 출신자와 중국인, 서구인 등 약 460명의 DNA 데이터에 아이누족과 오키나와 출신자 등 71명의 DNA를 추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아이누족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오키나와 출신자, 다음이 본토 출신자로 나타났다. 본토 출신자는 유전적으로 한국인과 가까웠다. 이는 일본인 전반이 조몬인 유전자를 계승하는 한편 본토 출신자는 야요이인과의 혼혈 비율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종합연구대학원의 사이토 나루야 교수는 "DNA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혼혈설의 시나리오에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다이아몬드 박힌 신용카드 카자흐스탄 부자상대 발급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신용카드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자카드가 지원부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최고급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이아몬드 신용카드를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0.17캐럿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이 카드의 제작 원가는 무려 6만5000달러(7085만원)에 달한다.

사용방법도 일반카드와 다르다.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선이 없어 긁는 대신 고유 핀번호를 찍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비자카드는 글로벌 프리미엄 상품인 '비자 인피니트 카드' 회원 중 최상위 고객 100명에게만 이 카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

/이국명기자

20's fashion Hot Street
LOTTE young PLAZA
간만에 멋 좀 냈더니 다들 나만 보네 티곤해서 어짜~하지?
오우, 딱 내 스타일~ 홍대 퓨인가? 아니면 가로수길?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궁금해? 지금 '영플라자'에 가면 원하는 스타일이 다 있을 거야 참, 사은선물도 꼭~챙기고!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
GRAND OPEN 축하 사은선물을 드립니다!
창립 33주년 축하
롯데·멤버스 카드 구매시 사은선물 증정
20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10만원
10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5만원, 캐리어, 주방 3종 세트
6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3만원, 보스턴백, 곰솥냄비
3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1만 5천원, 크로스백, 궁중팬
본점 영플라자에서 구매시 롯데상품권 증정
2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1만원 증정
10만원이상 구매시 상품권 5천원 증정
오픈 축하
유명브랜드 Hot Price 상품전
ASK 패딩베스트 79,000 → 30,000원
SOUP 패딩점퍼 279,000 → 139,000원

metro Canada

all 'sighs' for Kor
st Canadian show

metro Chile

Transexual

성전환 여성, 남성으로 투표 '발끈'

칠레 지방선거가 지난달 28일 실시됐다. 이번 선거에는 시작장에 1만8000명이 투표장을 찾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신분'으로 투표하는 등 선거 절차가 조거웠다. 코킴보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 여성 헤오르히나 루노스는 지난 3월 법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선거관리부에 예전에 사용하던 이름이 등록돼 어쩔 수 없이 '남성 신분'으로 투표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러 왔는데 선관위의 잘못으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metro HongKong

乾隆寶刀5千萬

청 건륭제 시절 보검 84억원 낙찰

중국 청나라 건륭제(1736~95년) 시절 제작한 보검이 지난달 29일 차이나 가디언 가을경매에서 4830만 위안(약 84억원)에 낙찰됐다. 중국 국가 1급 문물로 지정돼 있는 이 보검은 마카오의 한 수집가에게 팔렸다. 익명을 요구한 수집가는 "병기에 관심이 많다"면서 "이번 경매로 귀중한 보물이 하나 더 늘었다"고 흡족해했다. 천자십칠호(天字十七號)라는 이름의 이 요도(허리칼)는 S자형으로 가늘고 길며 칼날 끝이 약간 솟아 있다. 손잡이 부분은 백옥으로 조각돼 있고 위쪽에는 공고족 문양이 있다.

'넘버투 코리안' 캐나다에!

싸이, 허리케인 뚫고 토론토 콘서트 성황 ·· 말춤 콘테스트에도 참가자 몰려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에 돌풍을 몰고 온 한국 가수 싸이가 캐나다에 상륙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토론토 최대 나이트클럽 '클하우스'에서 열린 그의 첫 캐나다 공연에 시민들은 열광했다. 그의 폭발적인 인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질투할 정도다.

싸이는 프랑켄스톰 샌디를 뚫고 비행기에 몸을 실은 끝에 토론토에 힘겹게 도착했다. '갤럭시노트 2 공청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싸이가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고막을 찢을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신나는 말춤과 '볼쇼'를 선보이며 공연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단으로 흠뻑 젖은 채 공연을 마친 싸이는 내년 1월 토론토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부대에서 '챔피언' '라잇 나우' '강남스타일' 등 대표 히트곡 세 곡을 불렀다.

특히 이날 공연장은 검은색 선글라스에 턱시도를 차려 입고 말춤을 추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대 행사로 마련된 '니도 싸이 콘테스트 참가자들이다. 대회에서 최종 5인으로 뽑힌 사람들은 무대 뒤로 직행해 싸이에게 사인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우승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고등학생은 "수도 없이 말춤을 췄다"며 활짝 웃었다.

래퍼 그레그 휴은 "싸이의 뜨거운 열정이 그를 관중과 하나로 연결해준다"며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 덕분에 강남스타일 동영상 조회수가 6억 건을 돌파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제니퍼 로페즈의 '온 더 플로어'에 이어 유튜브의 '역대 가장 많이 본 동영상'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싸이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반 총장과 함께 말춤을 추며 유쾌한 모습을 연출했다.

반 총장은 "싸이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한국인이 됐다"며 "싸이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 중"이라고 농담을 했다.

/제시카 스미스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metro France

A Poitiers les étudiants réfutent tout « bizutage »

나체에 맥주 샤워 난장판 신입생OT 동영상 유출 발칵

벌거벗은 학생들의 몸에는 음칙한 각종 낙서가 난무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맥주와 밀가루로 샤워한 듯 온몸이 엉망이었다.

최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이 같은 난잡한 장면이 들어있는 푸아티에대학 신입생 환영회 모습이 올라와 프랑스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촬영된 이 동영상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미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메트로 파리와의 인터뷰에 응한 스포츠 과학과 신입생 에두아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신입생환영회폭력금지협회(ACB)의 생각은 달랐다.

ACB 회장인 알레상드르 이뮈자르는 "동영상을 잠깐 살펴봐도 여수 심각한 폭력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미 푸아티에대학 학생회장인 이브 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생각도 엇갈리고 있다.

신입생환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엘리장은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9년에 입학한 알렉시스는 "동영상에 찍힌 사람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포즈를 취했다"며 "이런 행위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이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알투위 드쿠라 기자·정리=하희경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유방암 예방 동영상에 남성 열광
- 시베리아 동굴서 설인 흔적 발견
- 돌로 만든 종이 비싸지만 친환경

woongjin

사랑으로 건강하게
지구는 푸르게

이번엔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있을까?

싼타와 함께하는 웅진플레이도시 크리스마스파티

Play C

축하 이벤트(10/27~11/4)

7호선 삼산체육관역 개통 기념

"워터파크 반값!"

삼산체육관역 이용 인증샷 제시시

워터파크 50% 할인

11월 이벤트(~ 11/30)

11월 생일자 우대

워터파크 또는 스키/보드 **50%↓**

특별우대(~ 11/30)

중고생 & 대학(원)생 우대

워터파크 또는 스키/보드 **50%↓**

서울도심에서 30분! 놀랍도록 가까운 곳에 웅진플레이도시!

지하철 | 1호선 부개역 2번출구에서 버스로 8분 거리

자동차 |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송내IC에서 5분 거리

지하철 | 7호선 삼산체육관역 1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1577-5773

www.playdoci.com

woongjin Play C

Kosdaq
505.56 / 494.86 / 502.31 / 506.31 / 506.83 +0.52
10/26 10/29 10/30 10/31 11/1

Nikkei (일본)
8946.87 (+18.56)
Hang Seng (홍콩)
21821.37 (+180.05)
Shanghai (중국)
2104.43 (+35.55)
Dow Jones (미국)
13096.46 (-10.75)

EXCHANGE RATE

달러	1092.00
엔(100)	1365.34
유로	1414.03
위안	175.06

넥슨-엔씨 '합작게임 1호'

'마비노기2' 공동 작업 내년에 온라인 서비스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빅딜(지분 인수) 이후 처음 공동 작업에 나선다. 내년 서비스 예정인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2:아레나'를 함께 만든다.

넥슨은 1일 '지스타 2012'에 출품할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이 가운데 한 작품인 '마비노기2:아레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합작을 언급했다.

특히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동영상을 통해 "8년 만에 '마비노기2'가 나온다. 두 회사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마비노기가 탄생하는 만큼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했다.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대주주가 된 이래 양사의 공동작업이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넥슨과 엔씨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엔씨가 게임 제작을 책임지고 넥슨이 완성품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넥슨은 '워 히어로즈',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등 지스타에서 선보일 6종의 게임을 소개했다.

/박상훈기자 zen@

'불황형 흑자' 탈출 신호?

쪼그라들던 수출·수입 지난달 나란히 증가세 '반전'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자본재 수입도 늘었다. 불황형 흑자의 늪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식경제부가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 증가한 471억6100만 달러, 수입은 1.5% 증가한 433억3610만 달러로 3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수입은 2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무역수지는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지경부는 "지난 3개월간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이달에는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수출 증가에는 아세안과 중국의 수출회복이 주효했다. 아세안 21.1%, 중국 5.7%, EU 2.0%, 중동 0.7%, 일본 0.1% 등 주요국 수출이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은 3.5%로 여전히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27.7%), 석유화학(6.9%), 무선통신기기(18.6%), 반도체(6.7%), LCD(1.6%)가 호조였고, 선박(-29.7%), 자동차(-3.3%), 철강(-10.7%), 자동차부품(-1.9%) 등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수입은 수출 확대로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증가세로 반전됐다. 용도별(10월 1일~20일)로는 원자재가 0.7%, 자본재 2.3%로 나타났다.

원자재는 도입 단가 상승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했다. 원유 도입단가는 지난해 10월 배럴당 109.8달러에서 116.0달러로 상승했으나 물량은 8280만 배럴에서 8100만 배럴로 소폭 감소했다.

자본재는 석유제품(21.0%), 전자집적회로(19.4%), 원유(3.3%)는 증가한 반면 비철금속(-5.4%), 철강제품(-6.3%), 가스(-14.9%), 반도체장비(-54.9%)는 부진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돈버는 앱 '슈퍼비 2.0' 항공권 이벤트

티아이커뮤니케이션즈(이하 티아이)는 국내외 어디든 휴대폰 통화만으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돈 버는 애플리케이션 '슈퍼비 2.0'의 론칭을 기념해 내년 1월 2일까지 누적통화분수에 따라 무료항공권과 적립금을 지급하는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슈퍼비 2.0은 무료국제전화는 물론 국내전화를 이용하면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전화는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050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전화는 휴대전화 요금제에 따라 매달 기본 분수 내에서 별도의 국제전화 요금 없이 전 세계 50여 개국에 전화가 가능하다. 슈퍼비 2.0은 안드로이드 마켓, T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이폰용 슈퍼비2.0은 11월 중 출시 예정이다.

이벤트 및 이용 사항은 홈페이지(www.super-apps.co.kr)와 고객상담실(1577-6717)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성기자

CJ ONE 회원 1200만명 돌파

CJ그룹의 라이프스타일 통합 멤버십 'CJ ONE'이 출시 2년 만에 누적 가입회원 1200만 명을 돌파했다.

1일 CJ그룹은 11월 한 달 동안 고객 성원에 대한 감사와 출시 2주년을 기념해 포인트 적립 및 쿠폰, 경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CJ ONE은 지난 7월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한 후 4개월 만에 신규 회원 200만 명을 유치했다.

/김지성기자

엔에스데블-SKT 'U러닝' 협약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컴퓨터화시험(UBT)으로 화제를 모은 엔에스데블이 'U-러닝'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엔에스데블은 1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컴퓨터화시험 및 유러닝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대표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의 제휴를 통해 스마트기기 기반의 UBT 국내외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와 더불어 양사는 'UBT' 상용화 및 'U-러닝'의 해외 시장 진출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UBT의 저변 확대를 통해 교육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겨울 별미 과메기 맛 보세요' 롯데마트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겨울철 별미 포항(구룡포)산 과메기를 선보이고 있다. 과메기는 DHA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어린이 성장과 피부 미용에 좋은 효과가 있다. 가격은 400g 1팩에 1만5800원. /뉴시스

현대차 한달 판매량 40만대 벽 깼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6만1496대, 해외 35만7703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3.9% 증가한 41만9199대(CKD 제외)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가 월간 판매 4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는 해외공장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내수도 공급에 정상화된 데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더해져 판매가 늘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 대응해 싼타페 등 신차 및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내수 판매 견인에 힘쓰는 한편, 수출 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8.6% 증가한 총 359만417대를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판매는 54만3063대로 4.8% 감소한 반면 해외판매는 304만7354대로 11.4% 증가했다.

/박상훈기자

은행대출 1100조 돌파

은행이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준 돈이 1100조원을 넘었다.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기업대출이 늘어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03조5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624조9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8조6000억원 늘었고, 가계대출은 456조3000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또 9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연체 기준)은 1.17%로 전월 말(1.55%)보다 0.38%포인트 낮아졌다. 기업대출(원화) 연체율은 1.39%로 전월 말(1.99%) 대비 0.60%포인트 하락했고,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은 0.92%로 전월 말(1.01%) 대비 0.09%포인트 떨어졌다.

/김지성기자

휴넷 홈피 '취업준비 박람회'

온라인 직무 교육 기업 휴넷이 온라인 취업 준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관'과 취업 후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담은 '성공관'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휴넷 홈페이지(www.hunet.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영탁 대표이사는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비싸데다 취업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지성기자

망고씨드·캐피어 보습할 때!

더페이스샵 5일까지 멤버스데이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고객 대상 할인 행사인 '멤버스데이'를 오늘(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펼친다.

찬바람이 불면 필요해지는 보습·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보다 알뜰하게 구매하려는 여성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다.

2~5일 더페이스샵 전국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전 품목을 20~30% 할인한다. VIP회원과 우수회원은 30%, 일반회원과 신규회원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장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휴대전화나 모바일 SNS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신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즉시 할인이 가능하다.

36시간 롱래스팅 보습효과를 주는 '망고씨드 실크 보습 페이셜 버터'와 캐비어제닉 온스타일의 '겟잇뷰티&얼루어 best of best 뷰티 어워드' 1위 화장품으로 선정된 '스킴 풍채 보습 크림' 등 프리미엄 보습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더페이스샵의 '망고씨드 실크 보습 페이셜 버터'(주름개선기능성·50㎖·2만2900원)는 100% 천연 식물성 망고씨드 버터를 함유한 얼굴 전용 보습 버터다.

파라벤과 유기색소, 동물성 원료 등 7가지 유해성분을 뺀 7무(無)처방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스킴 풍지 보습 크림'(미백기능성·60㎖·3만2000원)은 여름 내 칙칙해진 피부가 고민인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이용되는 캐비어(티벳버섯) 성분을 넣었다. 윤기 채습이 촉촉하게 빛나는 수분광 피부를 만들어주도록 했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5무(無) 천기(파라벤·벤조페논·인공향·유기색소·동물성원료 무첨가) 제품이다. /전효순기자

지바이게스 "옵티머스G 쏩니다"

롯데·신세계百 팝업매장서

캐주얼 브랜드 지바이게스(G by GUESS)와 LG전자의 옵티머스G가 지바이게스 스페셜 팝업 매장에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백화점 청리행사를 기념해 오늘(2일) 오픈하는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 백화점의 지바이게스 팝업 매장에서 1주일간 매장을 방문해 응모권을 작성하는 고객 5명을 추첨해 LG 옵티머스G를 증정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백화점 본점 지바이게스 팝업 매장에서는 2일 오픈과 동시에 매장을 방문하는 500명의 고객에게 티셔츠를 나눠준다. 기존 매장과 달리 특별한 SNS이벤트도 펼쳐 색다른 느낌의 지바이게스를 체험할 수 있다. /전효순기자

가을여자와 눈 맞은 갈색 서클렌즈

한국 시바비젼이 가을에 어울리는 1일 착용 서클렌즈 '후레쉬룩 일루미네이트 브라운'을 론칭하고 이를 기념해 50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일 착용 서클렌즈 '후레쉬룩 일루미네이트 브라운'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 구매 시 이 쿠폰을 사용해 5000원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할인 프로모션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언제든지 재장에 등록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시바비젼의 1일 착용 서클렌즈 '후레쉬룩 일루미네이트 브라운'은 아시아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로, 눈을 강력히 띄미다. 렌즈 자체에서 보습성분이 방출되는 아쿠아 릴리즈 공법으로 하루 종일 눈이 촉촉하고 편안할 수 있게 했다. 가격은 1팩 4만원(30개입).

공간별 콘셉트에 맞춰 '한 점' 잘 골라서 걸면 집이 힐링캠프·카페…

인테리어 화룡점정, 그림

가을이 그려놓은 단풍이 수채화처럼 아름답다. 계절이 바뀌는 요즘 집에도 볼감을 줄어 재색할 수 있다. 그림 인테리어를 통해서다. 요즘 인터넷에서 파는 그림들이 높이 1만원대 그림도 많아 문턱이 낮아졌다. 공간에 생생한 감각을 불어넣어줄 그림 한 점의 힘 믿을 만하다.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엿볼 수 있는 TV드라마 속 세트장을 살피면 어떤 그림을 걸지 감이 생긴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신사의 품격' 속에서 김은 감히 지면 미술은 어린 홍세라(윤세아)의 집에 걸린 그림은 화려한 색체로 캐릭터를 살려준다.

비펜즈 그림닷컴의 마아현 팀장은 "드라마 세트장처럼 그림을 통해 인테리어를 하려면 공간별로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은지의 목적을 먼저 떠올려라"며 "가장 넓은 벽면에 대형 그림 한 점이나 중간 크기의 그림 두 점을 세트로 걸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얻는다"고 조언했다.

요즘은 '힐링' 콘셉트의 그림을 많이 찾는다. 산림욕을 하듯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 자연 풍경이나 부드러운 색감으로 점이나 선, 면을 그린 에코스타일 그림들을 침실과 거실용으로 선호한다.

카페 스타일로 주방이나 거실을 꾸미는 이들이 많아 커피를 표현한 그림도 인기가 높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바꿀때 된 우리 집 어떡하지?

할인 싸게 사고 덤도 챙긴다.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득템'할 소식들이 여기 있다.

*한일카페드(www.hanilcarpet.co.kr)-10일까지 전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올 가을 겨울 신제품 20~40% 할인 판매. 온라인 쇼핑몰에서 30일까지 44주년 창립기념 행사를 열어 소재 60% 할인, 시볼리 사기 키셋 구매 시 현관매트 증정.

*씰리 침대-현대·신세계·아이파크 백화점 내 씰리 매장에서 11월까지 혼수용으로 매트리스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쉐라톤이안 엔 스위트 앰배서더 평창 1박 숙박권 증정.

*현대카드 프리비아 쇼핑(shop.hyundaicard.com)-16일까지 인테리어 스타일 제안전. 리빙 위드 스타일 진행. 블룸 펜던트 램프 32만1500원, 뮤티를 누어 디너세트 6만4500원.

*보루네오가구-18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상반기 인기상품을 할인 판매. 옷장·소파·식탁 등을 최대 35% 할인. 구매 금액에 따라 5만~2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증정.

제시카 촉촉한 광채피부의 비밀

소녀시대 제시카가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 비결을 공개했다.

메이크업 브랜드 비날라코의 모델로 활동 중인 제시카가 귀띔한 비법은 '촉촉스킨 비밀'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부를 위해 스킨케어와 베이스, 클렌징 이 세 가지는 꼭 철저하게 챙긴다는 것. 제시카는 "촉촉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는 보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미스 워터&미스터 오일 모이스처 스킨'으로 기본적인 보습을 한 뒤 '미스터 오! 페이셜 밤'으로 완벽한 피부 보습막을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메이크업을 할 때는 물론이고 하지 않을 때에도 '엣 시이니 쉬머 베이스'를 발라 촉촉한 피부를 연출한다. 파운데이션이나 BB크림에 섞어서 바르기도 하지만 윤기 없는 맨 얼굴을 위해 스킨케어의 마무리로도 사용한다.

피부관리의 기본이자 필수인 클렌징을 위해 쓰는 아이템은 비로 '글린 잇 제로 레디언스'로 클렌징과 각질 케어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듀퐁 기모셔츠 '포근한 멋'

프랑스 명품브랜드 S.T.듀퐁이 프리미엄 기모 셔츠를 선보인다.

기존 기모 셔츠에 다양해진 체크 패턴과 컬러, 보온성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기모 셔츠는 두께감을 최소화하고 보온성을 높여 봄에 보일 수 있는 기모 셔츠의 단점을 보완했다. 스마트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잔 체크 패턴부터 박 체크 패턴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준비했다. 문의 www.st-dupont.co.kr 02)2106-3692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프로포폴 투약' 에이미 집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 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에이미는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춘천 경찰서에 구속수감됐다.

정경호 '연간과 태종' 복귀

9월 전역한 배우 정경호가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 '연간과 태종'(가제)을 복귀작으로 택했다.

안하무인인 한류스타 이준규 역을 맡은 그는 "같은 소속사 식구이자 대학 선배인 하정우의 첫 연출작에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전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코믹한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이달 말 촬영에 돌입한다.

김무열의 '개들의 전쟁' 개봉

지난달 입대한 김무열이 영화 '개들의 전쟁'으로 관객과 만난다.

이 영화는 김무열의 첫 단독 주연 작품으로 22일 개봉된다. 앞서 그는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제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지난달 9일 자진 입대했다.

유인영, 이지아와 한솥밥

배우 유인영이 이지아와 한솥밥을 먹는다.

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유인영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곳은 음원 서비스 업체 소리바다의 자회사로, 이지아·류수영·황보나·최성국 등이 소속돼 있다. 유인영은 "앞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큰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화 '늑대소년' 박보영

촌티 캐릭터 맘에 쏙 들어요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고 고교 시절까지 보낸 박보영(22)은 아직도 자신을 '촌스러운 아이'로 여긴다. 성장기의 시골 감성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어서다. 연 체의를 말을 하도 촌티 풀풀 나는 이웃의 캐릭터에 마음이 갔다. 과속스캔들 의 일부터 31일 개봉될 '늑대소년'에서 늑대소년 철수(송중기)와 풋풋하면서도 애틋한 첫사랑을 나누는 순이까지 그가 연기했던 인물들은 왠지 고향집 누이처럼 포근하게 다가온다.

● **이번 영화에선 보영씨가 "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어머! 그렇게 봐주셨다면 정말 기분 좋죠. 이제까진 소녀와 숙녀의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었는데 '늑대소년'을 끝내고 나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 뼘 이상 성장했어요. 거창하진 않지만 제대로 된 성인식을 치른 느낌입니다.

● **제목이 주는 선입견과 달리 대단히 달달한 성장 판타지 동화였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호러의 분위기가 짙었어요. 조금 무서웠죠. 그런데 연출자인 조성희 감독님이 각색 과정에서 어두운 색채를 확 걷어냈죠. 그거 모르시죠? 시나리오의 여러 버전들 가운데 '늑대소녀'도 있었다는걸.

● **금시초문인데요. 그렇다면 속편은 보영씨가 다시 주연을 맡아 '늑대소녀' 로?**

하하하.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감독님께서 다양한 시선으로 치밀하게 작품을 준비했다는 얘기죠. 만약 '늑대소녀 가' 제작된다 하더라도 이 얼굴로 감히 어떻게 늑대인간을 연기하겠어요.

● **여성들의 '로' 판타지를 아주 영리하게 건드립니다. 송중기 같은 늑대인간이라면 500 마리도 키우겠다는 여성들이 주위에 많아요.**

맞아요. (송)중기 오빠의 공이 아주 커요. 대사가 없어 마임만으로 연기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정말 훌륭하게 해냈거든요. '아무 말 없이 동공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시나리오 지문이 있다 치요. 대사 없이 감정만으로 이 같은 지문을 소화하기란 정말 힘들죠. 그런데 중기 오빠는 완벽하게 연기하더라고요.

● **'안구 돌리기'의 대가인 이경규씨도 울며 돈지 인기를 것 같은데**

여휴. 안구와 동공은 다르잖아요.

● **농담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좋아 다른 작품에서 다시 공연해도 좋을 듯싶어요**

얼마든지요. 그렇지 않아도 중기 오빠와 작품에서 또 만나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주 나누곤 했어요. 단 연인 말고 오누이로요. 하하하.

●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살인기 미확인 동영상 을 포함해 개봉작만 두 편이니 어느 해보다 뿌듯하겠어요.**

소속사 이적 문제 등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란 걱정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비교적 건강하게 고비를 이겨낸 것 같아 정말 기쁘답니다. 무엇보다 제 필모그래피에 '과속스캔들'과 더불어 자랑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드라마를 할 듯한데 잘 모르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편성 확정까지 복잡한 과정이 너무 많아 확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주위에선 "이제 너 혼자 극을 이끌어가라"고 권유하지만 싫은 걸이 니요. '과속스캔들' 때에선 (차)태현 오빠와 (왕)석현이에게, '늑대소년' 에선 중기 오빠에게 각각 묻어갔던 것처럼 계속 남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여전히 묻어가고 싶은 걸 보니 저 아직 소녀인가 봐요. 하하하.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최종수(라운드테이블) 디자인/김지언

MBC 새 수목극 '보고싶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윤은혜 유승호 박유천 장미인애(왼쪽부터)

"장미인애 하차요구 자제를"

'보고싶다' 박유천 "팬 관심 고맙지만…" 우려

박유천이 MBC 새 수목극 '보고싶다'의 장미인애 하차 요구 논란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저에 대한 (팬 여러분의) 관심이라고 생각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아주 당연한 문제를 자칫 크게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식구이자 함께 드라마를 끌어가야 하는 입장인 만큼 그런 부분(하차 요구)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미인애는 소속사 식구 챙기기, 상대역 확보 활영 경력 '인기'와 부족' 등을 이유로 박유천 일부 팬덤 측에서 제기한 하차 요구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장미인애는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보고싶다'는 열다섯 살 첫사랑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형사가 된 한정우(박유천)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지우고 살아온 이수연(윤은혜)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7일 첫 방송된다. /권보람기자 kwon@

<건강미 섹시미 성숙미>

3색 매력입은 손담비

네번째 미니앨범 티저 공개

섹시 퀸 손담비가 업그레이드된 매력으로 무장하고 2년 만에 가수로 컴백한다.

12일 네 번째 미니앨범 '눈물이 주르륵'을 발표하는 손담비는 1일 티저 이미지를 통해 그동안 감춰왔던 새 앨범에 대한 베일을 벗었다.

공개된 사진에서 그는 각선미와 탄탄한 복근이 드러나는 의상으로 시선을 압도했다. 건강미 넘치는 보디라인과 함께 매혹적인 표정으로 한층 성숙한 매력을 표현했다.

손담비는 드라마 '빛과 그림자'에 1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하며 연기활동에 전념했다. 지난해부터 컴백 소식이 전해졌지만, 완성도 높은 음반과 무대를 위해 2년간 공백기를 보냈다.

소속사는 "2년 만의 컴백인 만큼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최상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층 향상된 손담비의 섹시한 매력과 퍼포먼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숨고른 싸이 다시 달린다

빌보드 6주째 2위…1위 마룬파이브와 600점차 좁혀

싸이가 6주 연속 미국 빌보드 차트 2위에 머물렀지만 정상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였다.

1일 빌보드 비즈에 따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7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마룬파이브의 '원 모어 나이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그러나 2000점까지 벌어졌던 두 곡의 점수 차는 이번주 600점으로 다시 줄어들며 다음주 박빙의 승부를 예고했다.

총점에서 '원 모어…'가 지난주보다 1% 하락한 반면 '강남…'은 4% 상승했다. 특히 싸이는 현지 프로모션을 재개하면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에서 마룬파이브를 압도했다.

이전비 방송 횟수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머물고 있는 싸이는 이달 집중적인 라디오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어서 역전을 노려볼 만하다. /유순호기자

god 8년만에 다시 뭉쳐

2000년대 인기 그룹 god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8년 만에 다시 뭉쳤다.

케이블 채널 올리브의 요리 프로그램 '윤계상의 원테이블'의 MC인 윤계상은 마지막 게스트로 god의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박준형 손호영 데니안 김태우를 초대했다. 이들은 2004년 윤계상이 팀을 탈퇴한 이후 공식적으로 모인 적이 없으며, 나머지 네 멤버도 2005년 7집 발표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모임은 윤계상이 멤버들을 대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사됐다. 이들의 만남은 16일과 17일 2회에 걸쳐 방송된다. /유순호기자

- 긴장 넘치는 스토리 전개
- 사실감 더한 세트와 대사

웰메이드 스파이 영화의 진수

Film Review
/이혜민 일보 칼럼니스트 @sfhope@naver.com

■ 아르고

냉전 시대 이후 세계의 분쟁 지역에 관한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랙 호크 다운'이나 맷 데이먼 주연의 '그린 존' 등이 바로 그렇다.

특히 '블랙 호크 다운'은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갇힌 미군을 구출하는 과정을 실제 전투를 벌이듯 사실적이고 긴장감 넘치게 그려내 화제를 모았다. '아르고'는 미군이 아닌 CIA 요원이 이란에 갇힌 미국 대사관 직원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구출해낸 실화를 다룬 영화다.

뛰어난 배우이자 '가라, 아이야 가라', '타운' 등으로 연출력도 인정받고 있는 벤 애플렉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아르고'는 1979년 이란이 미국 대사관을 점령했을 때 캐나다 대사관으로 피신했던 미국 대사관 직원 6명을 구출하기 위해 벌인 CIA의 작전을 그린다.

'아르고'라는 SF영화를 찍는다며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캐나다 영화 스태프로 위장시켜 구출한 이 기발한 작전은 지난 1997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밀 사항에서 해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실제 작전을 기획한 토니 멘데즈의 책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당시 인물들의 묘사나 대사 등은 사실감을 더한다. 1970년대를 표현한 미술이나 세트, 터키 이스탄불 촬영 장면 등도 흡사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아르고'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벤 애플렉 감독이 만들어낸 긴장감 넘치는 연출과 편집에 있다. 소재 자체가 액션보다는 드라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지만 빠른 이야기 전개와 편집으로 극복한다.

특히 후반부에 미국 CIA와 이란의 공항, 할리우드 등 세 개 지역이 교차 편집되며 펼쳐지는 탈출 장면은 스파이영화 특유의 긴박감을 만끽할 수 있다. 비밀에 묻혀졌던 실화를 영리한 시나리오와 영화적 장치로 재연한 '아르고'는 웰메이드 스파이영화의 계보를 잇고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

정지영 영화계 까발리는 '영화판' 개봉

정지영 감독이 영화계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다큐멘터리를 내놓는다.

다음 달 6일 개봉할 '영화판'은 정 감독이 국내 영화 제작자·감독, 배우 등 영화인을 인터뷰해 영화계 뒷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13년간 자신이 간직했던 고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정 감독이 제기한 문제를 놓고 각 계층의 영화인들이 소신껏 대답하는 인터뷰 형식을 취했다. 정 감독은 이에 앞서 영화 '남영동1985'의 개봉(22일)을 앞두고 있다. /유순호기자 tuto@

지금 daum 소셜픽에서는 와글와글

"종로 화재, 시설보수도 급하지만…"

지난달 31일 새벽 6시43분 종로3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생선구이와 보쌈으로 유명한 서울극장 식당골은 누구나 한 번쯤 들러본 일이 있을 겁니다. 지난달 발생한 세운상가 화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들려온 소식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리 중 튄 위의 식용유가 발화하면서 배기구의 기름때와 인화성 천막에 옮겨 붙은 불이 삽시간에 주변 식당 17곳을 전소시켰습니다. 간접 피해를 본 곳까지 합하면 40여 가게가 넘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종로 화재를 막기 위해 낙후된 시설을 보수해야 하지만, 땅값이 비싸고 영업 보상금도 만만치 않아 정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재보험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지역이라 피해 후 보상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화재 잠복지역이지만 방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울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윤창단 (pkash****)

ㄴ 소곤두는스님: 영세업자들 힘든 판에 저런 일까지 당하니 마음 아프네요~ 에효ㅠㅠ
세월따라: 서울시는 빨리 이런 골목들 좀 정리해라. 벌 나면 너무 좁아서
남쪽자동차: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구경 온 사람들이 그렇게 밉더군요.
정출산: 불은 삽시간에 번집니다. 인기로 인명피해도 심각하고요. "불조심" 백 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곰: 화재보험 거절은 고의적으로 보험료 챙기려는 의도를 구별하기 힘든 게 원인 같네요. /정리=유순호기자 tuto@

또디 by 정연식 <525>밥상문화

wind6686@naver.com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7 What day is today? 요일과 달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코드합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01 저는 지난달에 몇 주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102 화요일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103 당신은 2월에 여기에 있었죠, 그렇지 않았나요?
104 아니오, 아니었어요.
105 저는 두 달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01 I was in the hospital for several weeks last month.
102 Where were you on Tuesday?
103 You were here in February, weren't you?
104 No, I wasn't.
105 I was out of town for two months.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01~105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You were here 2월에, weren't you?
B Yes, I was. I was here two weeks ago.

정답 In February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Your friend was here [a week ago / a month ago], wasn't he?

2 Where were you [last night / a week ago]?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The Mirkis Corporation _______ fifteen different magazines about health and travel to subscribers across the nation.
(A) produces (B) receives
(C) orders (D) notes

02 Over the years, businesses have developed and tested various methods to measure employee _______.
(A) performer (B) performs
(C) performed (D) performance

01. 미르키스 사는 15가지 다른 종류의 건강 및 여행 잡지를 전국의 구독자들에게 출간한다.
해설 기업의 잡지를 발간하다가 적합하므로 (A) produces를 쓴다. '출판하다, 발간하다'라는 의미의 publish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어휘 subscribe 구독자 note 주목하다, 언급하다
정답 (A) produces

02 수년간 회사들은 직원 성과를 측정할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시험해 왔다.
해설 문맥상 직원 (업무) 성과를 의미하는 복합명사인 employee performance를 쓴다.
어휘 various 다양한 method 방법 measure 측정하다 performer 공연자, 실행자 perform 수행하다, 실행하다
정답 (D) performance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Do 의문문

Do you think ~ Do you prefer ~ 의문문 형식 같은 질문이 나오면, 자신의 입장이나 선호하는 것을 정확히 밝힌 후에 그에 대한 이유를 덧붙일 수 있습니다.

Q.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to own a car?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Yes, it is necessary to own a car because my city is really big.
우리 도시는 아주 크기 때문에
No, it isn't necessary to own a car because cars cost a lot of money.
자동차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Q. Do you prefer to spend your free time alone or spend it with other people?

A I prefer to spend my free time alone because I can relax.
혼자서 쉬어 될 수 있기 때문에
I prefer to spend my free time with other people because I can have more fun with them.
다른 사람들과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됐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거리의 지뢰 '볼라드'

권기봉의 **도시산책**

서울 신교동, 그러니까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지역에 국립서울맹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내년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학교로 시각장애 학생 250여 명이 재학 중이다.

한 달에 두어 번 공부모임이 있어 근처를 지나다 보면, 지팡이로 점자 유도블록을 두드려가며 능숙하게 걷는 학생들을 만나곤 한다. 그런데 종종 위태로운 모습도 보게 돼 간담이 서늘해진다. 2km가 채 안 되는 좁은 거리임에도 '볼라드', 즉 차량들이 인도로 진입하는 걸 막으려고 세워놓은 기둥들에 학생들이 무릎을 부딪히는 상황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국의 도로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고, 심지어 인도로까지 올라오는 오토바이나 차량들이 부지기수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 볼라드들마저 오류가 많다는 점이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 내외여야 하고, 행여 보행자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재질의 고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된 볼라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시멘트나 화강석 혹은 강철로 만든 볼라드들이 대부분이다. 높이도 어중간해서 자칫 부딪히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지난달 말, 고작 서너 걸음을 떼지 못해 화재연기에 질식해 숨을 거둔 지체장애인 고 김주영씨의 부음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며칠 뒤에는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에 단둘이 집을 지키던 뇌병변 증이 소년과 누나가 화재로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극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일상적 감수성'은 지극히 설약하기만 하다.

/'도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11/2 金 일출 06:58 일몰 17:3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계절이나 음식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주 원인인 집먼지 진드기 제거를 위해서 미지근한 물에 침구를 세탁한 후 햇빛에 말리세요.

천식지수 / 호흡기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직장·학업 병행 가능할까요 / 불도저 추진력 뛰어나 성공

일대 여자 82년 10월 23일 양력

Q 저는 고졸이지만 27살에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수록 일의 즐거움도 느끼는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년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으며 회사와 학업을 병행하려 합니다. 지금은 경영관리 전반업무를 맡고 있으며 마케팅 업무에 대한 제안도 했는데 제안 할 몇몇은지요.

A 약한 듯 보이지만 생일지에 편관(偏官)으로 자존심과 명예욕이 출중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긴다는 마음으로 하니 길성으로 미래 운세도 뛰어납니다. 직장에서 맡기는 일의 틀고 어려움을 가리지 말고 추진력을 보이면 직함을 이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칠을 위해 발을 하는데도 2013년도는 합주할 가처음에는 좋아서 합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며 헤어지는 것하는 것이 암시되니 부서 선택에 대해 우려 수는 두지 마십시오. 2014년에는 구추방해(九醜妨害)로 이성 운에 충돌이 예견되니 지혈계획을 잘 세우고 활동에 오히려 없도록 하십시오. 배움은 평생자산이니 자분히 능력을 키워나가십시오.

여러번 이직 탓에 갈수록 좌절감 / 덜 쓰고 더 모으는 개미생활 필요

인천의 일남 여자 82년 1월 7일 양력

Q 여러 번 회사를 옮기고 나니 이젠 다른 일을 해 봐야 하나 직장운이 전혀 없나 라는 좌절감이 듭니다. 공무원을 준비할까, 아님 새로운 직종으로 다시 시작해볼까, 아님 사업을 해볼까라는 여러 생각에 머리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 급하게 결정해서 시작하는 것도 안 좋을 거 같고…

A 사주에 재관(財官)인 재물과 직업이 허공에 떠 있거나 뿌리가 없으면 편관(偏官) 할 군 가족으로 일 기회 안면이 없고 학문적 성취가 어렵습니다. 또한 비견(比肩)인 나와 동급 경쟁자들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나니 재물 모으기가 어려우며 다시다난하게 삽니다. 옛 고서에 보면 주변의 복을 얻지 못한다. 무릇 사주에 비견이 혼잡하거나 태과하면 남자는 주색을 탐하고 여자는 일부일처로 사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관성이 미약하므로 공무원은 어렵습니다. 군검쟁재가 일어나서 사업도 생각뿐이지 성현시키기 어렵습니다. 운세를 극복하면 그 반대의 결과를 얻어 부귀한다 하였으니 제조회사에 들어가 덜 쓰고 빚을 갚으며 배우면서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에 월·음력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2일 (음 9월 19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 48년생 얘기가 들려갈 경사가 생긴다. 60년생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72년생 변수가 있어도 소신 지키는 게 좋다. 84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유쾌~

소 — 49년생 어렛사람 제안은 받아들여라. 61년생 입안에 웃음꽃이 터지는 경사가 생긴다. 73년생 요행 바라지 말고 땀 흘려라. 85년생 남의 말로 벽돌나 좋겠다.

호랑이 — 50년생 마음을 비우면 고민은 해결된다. 62년생 작막한 생에 서광이 비추는구나. 74년생 저만이나 받조하면 박수받는다. 86년생 인간생실이니 상사와 대립은 피하라.

토끼 — 51년생 새 일을 하려면 나이부터 잊어라. 63년생 춤추고 노래할 경사가 생긴다. 75년생 일이 다소 꼬이더라도 일정심 잃지 마라. 87년생 주일 데이트 약속에 들거워진다.

용 — 52년생 마음 흔드는 유혹이 있다. 64년생 지갑을 불릴 거래처가 생기니 기대하라. 76년생 어려워도 기다리던 기회는 온다. 88년생 일생 소지가 있는 일엔 나서지 마라.

뱀 — 53년생 뒷말이 많은 일은 관망할 것. 65년생 과감히 일어붙이면 의외의 결과 얻는다. 77년생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줘야 효과만점~ 89년생 속내를 밝혀야 기회가 온다.

말 — 42년생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웃다. 54년생 뜻을 이루려면 모험 두려워 마라. 66년생 야망은 숨기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78년생 버스 떠났으면 손 흔들지 마라.

양 — 43년생 자녀에 부담되는 부탁은 생거라. 55년생 신변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67년생 아직 희망은 있으니 기죽지 마라. 79년생 천만금보다 귀한 동지를 얻는다.

원숭이 — 44년생 존재감을 과시할 일이 생긴다. 56년생 중요한 일은 서두르지 마라. 68년생 주머니가 든든하니 배짱이 생긴다. 80년생 과욕으로 인한 실수 조심 또 조심~

닭 — 45년생 온 가족이 함께 행복의 나라로~ 57년생 술자리는 아쉬울 때 뒤로하는 게 좋다. 69년생 과유불급이라는 말 명심~ 81년생 고민은 털어놓으면 해결된다.

개 — 46년생 괜한 걱정으로 마음의 병 만들지 마라. 58년생 배우자가 기대에 부응한다. 70년생 조건이 지나치게 좋으면 재고할 것. 82년생 삶에 활력소가 될 일이 생긴다.

돼지 — 47년생 지나친 자부심은 적만 만든다. 59년생 뜻에 넘치는 대접에 즐거운 하루~ 71년생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손해가 덜하다. 83년생 이미지 개선에 노력 아끼지 마라.

완벽한 'V' 삼성 투타 저력 뽐냈다

한국시리즈 MVP를 수상한 이승엽(오른쪽)과 동료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박석민 투런·이승엽 3타점 공격 선봉… 장원삼·오승환 무실점 방어

'사자군단' 삼성이 2년 연속 한국 프로야구 챔피언에 올랐다.

삼성은 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승제) 6차전에서 선발 장원삼의 눈부신 호투와 박석민의 투런, 이승엽의 싹쓸이 3루타 등 팀 타선이 폭발해 SK를 7-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2패를 기록한 삼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페넌트레이스와 한국시리즈를 석권했다.

이번 우승으로 삼성은 1985년을 시작으로 2002년, 2005년, 2006년, 2011년에 이어 팀 통산 6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일본에서 한국 무대로 9년 만에 복귀한 '라이언 킹' 이승엽은 기자단 투표에서 총 71표 중 47표를 획득해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시즌 MVP를 5차례 수상한 바 있지만 한국시리즈 MVP를 받은 것은 생애 처음이다.

삼성은 1회 최형우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선발 장원삼의 호투로 1점 차 리드를 이어가다 4회 대거 6점을 뽑아 승부를 갈랐다. 1사 1루에서 박석민이 SK 선발 마리오의 슬라이더를 걷어올려 좌측 담장을 넘겼다.

이만수 SK 감독은 송은범을 마운드에 올렸지만 삼성의 불붙은 방망이를 잠재우지 못했다. 조동찬과 김상수가 볼넷으로 2사 1, 2루 찬스를 만든 뒤 배영섭이 1타점 적시타를 날려 4-0으로 달아났다. 이어 정형식이 볼넷으로 출루해 2사 만루의 찬스를 만들었다. 타석에 들어선 이승엽은 우익수 키를 넘어가는 주자일소 3루타를 터뜨려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2차전 승리투수였던 장원삼은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고 단 1안타만 허용하며 SK 타선을 꽁꽁 묶어 데일리 MVP로 뽑혔다. 류중일 감독은 8회 안지만, 9회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려 경기를 마무리했다.

1번타자 배영섭은 이날 5타수 3안타 2득점 1타점으로 확실하게 공격의 물꼬를 텄다.

한편 올해 프로야구는 포스트시즌 15경기에서 입장수입 103억9322만6000원을 기록해 최초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 한국시리즈 6차전 전적

팀	1-3회	4-6회	7-9회	R
삼성	100	600	000	7
SK	000	000	000	0

▲승 장원삼 ▲패 마리오

이승엽 생애 첫 한국시리즈 MVP

2012년 한국시리즈 MVP는 '라이언 킹' 이승엽의 차지였다.

이승엽은 이번 시리즈 6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서 타율 0.348(23타수 8안타) 7타점 1홈런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1차전에서는 선제 투런포로 시리즈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여유를 팀에 안겨주었다.

4차전에서 어이없는 주루 플레이로 잔칫 체면을 구겼지만 5차전에서 결정적인 호수비로 실수를 만회했다. 6차전에서는 4-0으로 앞선 4회 2사 만루에서 싹쓸이 3타점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숱한 개인 타이틀을 보유한 이승엽이지만 한국시리즈 MVP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준기자

류중일 "2연속 우승 생각 못해"

이만수 "5차전 분패 잠 못자"

류중일(49) 삼성 감독이 2연속 우승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기뻐했다.

그는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나이 같다. 지난해 감독이 돼 우승했고 올해 연속 우승은 생각도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전력이 그대로 있고 이승엽이 들어와 전문가들이 무조건 우승 1순위로 꼽았다. 나와 선수들이 조금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제가 고비였다. 사실 경기 내용으로 우리가 졌다. 4, 7, 9회 SK에 찬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압박수비로 잘 막아낸 것이 오늘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만수(54) SK 감독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명승부를 펼친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 감독은 경기 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주위에서 7위라고 이야기해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한국시리즈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기적같은 성적"이라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시리즈에서 가장 아쉬웠던 경기로 그는 5차전을 꼽았다. 2패 뒤 2연승을 거둔 SK는 5차전에서 숱한 찬스를 날리면서 1-2로 석패했다. 그는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이겼어야 했는데 삼성에 넘겨주는 바람에 그 여파가 오늘까지 온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기성용, 제라드와 맞대결 완승

리버풀전 풀타임 활약… 스완지 컵대회 8강 견인

'키 라드' 기성용(23·스완지시티)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을 컵대회 8강으로 이끌었다.

기성용은 1일 오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2012~2013 캐피털원컵 16강 리버풀전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 팀을 진두지휘하며 3-1 승리를 견인했다.

그는 공수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리버풀 미드필더진을 압도했고, 장거리 침투패스로 여러 차례 득점 찬스도 만들었다. 특히 후반 교체로 들어온 스티브 제라드와의 맞대결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담담함을 보였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33분 첫코의 헤딩으로 먼저 리버풀의 골문을 열었고, 후반 26분 다이어의 추가골로 쉽게 경기를 풀어갔다. 리버풀이 후반 30분 수아레즈의 만회골로 추격을 해왔지만 후반 추가시간 데 구즈만이 쐐기골을 넣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6강전에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첼시가 5-4로 승리했다. 노리치시티도 토트넘을 2-1로 따돌리고 8강에 안착했다. /김민준기자

U CITY NIGHTCLUB
LUXURY 30;/40
U-CITY NIGHTCLUB
02)542-1035-6

CENTER POLE®
Swiss Trekking Technology

Down
Down